

2018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I.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조명현)은 국내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여 2018년도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함
- ESG 등급은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 성과 및 위험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각 ESG 등급 및 ESG 통합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
- 올해는 상반기에 기업지배구조(G)를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2018.7.10.)하였고, 총 881사를 대상으로 2017 사업연도의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등급위원회에서 환경·사회 등급과 통합등급을 부여(2018.10.10.)함

II. 2018년 ESG 평가 주요 특징

평가시기 조정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공시정보 반영 확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8년부터 상반기에 기업지배구조(일반 상장사/금융사 별도 평가)를 먼저 평가하고, 하반기에 환경·사회를 평가하여 통합 등급을 부여(2018.10.10.)함
- 지배구조 평가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발간되는 상반기(4월-6월)로 평가시기 유지
- 환경·사회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는 하반기(7월-9월)로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비재무정보 공시를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평가모형 세분화를 통해 기업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

-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배구조 평가모형을 제정하여 별도 평가
 - 상장 금융회사는 ESG 평가 시 지배구조 분야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항에 의하여 평가(2018. 7. 23. 보도자료 참조)
- 지주회사의 환경·사회 평가모형을 자회사 평가결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정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자회사의 ESG 위험이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자회사의 비재무정보를 모회사의 평가에 일부 반영함
- 환경 및 사회 영역에서의 기업 특성(환경 민감도, B2B/B2C 여부)에 따른 차등 평가 실시
 -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 민감도 및 사업의 특성(B2C 사업, B2B 사업, B2B IT사업 또는 재보험업)을 고려하여 평가 문항을 달리 적용함

III. 2018년 ESG 등급 부여 결과

2018년 ESG 통합등급 부여 결과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은 2017년 수준과 유사하나, 여전히 상당수 기업(79%)가 보통 이하의 수준('B' 이하 등급)으로 나타나, ESG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2018년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교
	2018	2017	
S	0사	0사	
A+	11사 (1.5%)	5사 (0.7%)	▲ 0.7%p
A	41사 (5.6%)	38사 (5.2%)	▲ 0.4%p
B+	101사 (13.9%)	116사 (15.8%)	▽ 1.9%p
B	261사 (35.9%)	290사 (39.6%)	▽ 3.7%p
C	278사 (38.2%)	261사 (35.6%)	▲ 2.5%p
D	35사 (4.8%)	23사 (3.1%)	▲ 1.7%p
계	727	733사	

- * 기업별 등급정보는 KCG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 평가대상 상장회사 881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27사만을 제시함
 - *** 금년도에는 'B+' 등급 이상 기업 명단만 공개하고, 추후 등급공개를 확대할 계획임
- 중상위권 기업의 ESG 정보공개 확대 및 책임경영 시스템 강화 등 자발적인 ESG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하위권 기업은 ESG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영역별 등급 부여 결과

- 사회책임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자발적인 ESG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ESG 경영 수준은 전년과 유사함
- (환경)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아 전년도와 평가결과가 유사하며, 상위권 기업이 일부 증가함
- (사회) 감점 적용이 일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사회책임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증가함
-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CoE) 도입 확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감점요인 확대 등으로 2017년도와 유사한 등급 분포를 보임(2018. 7. 23. 보도자료 참조)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등급 \ 구분	환경		사회		지배구조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S	-	-	-	-	-	1
A+	7	4	38	26	9	3
A	55	58	50	50	27	53
B+	142	144	137	104	144	153
B	216	219	241	261	295	348
C	110	78	250	274	226	155
D	197	230	11	18	26	20
계	727	733	727	733	727	733

* 기업별 등급정보는 KCGS 홈페이지(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에서 확인 가능함
 ** 상장회사 881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27사만을 제시함
 *** 금년도에는 'B+' 등급 이상 기업 명단만 공개하고, 추후 공개 등급을 확대할 계획임

붙임.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첨부. 2018년 ESG 등급 부여 내역

※ 담당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1팀	김진성 팀장 (E)오윤진 파트장 (S)장윤제 연구원 (G)정유진 파트장	(02-6951-3701, jskim@cgs.or.kr) (02-6951-3704, shining5@cgs.or.kr) (02-6951-3702, jyj@cgs.or.kr) (02-6951-3706, yjjung@cgs.or.kr)
----------------	--	--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2018.1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목차>

I. ESG 평가 및 등급 개요	1
1. ESG 평가 개요	1
2. ESG 등급	2
II. ESG 등급 현황	4
1. 2018년 ESG 등급 현황	4
2. 전년도 대비 ESG 등급 변화	4
3. 영역별 등급 변화 요인	6

I. ESG 평가 및 등급 개요

1. ESG 평가 개요

- (평가대상) ESG 평가대상 회사를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함 (총 881사)

<표 1> ESG 평가대상 기준

대상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코스닥 100 구성종목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 R 펀드 지문서비스 제공 기관 요청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회사 - 특수목적법인 등 페이퍼컴퍼니 -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 (평가절차)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 후, 기업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 절차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함

	G	E·S	
① 평가 준비	3월	6월	평가대상 기업 확정 및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
② 정량평가	~ 5월	~ 8월	기업 공시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검증 실시
③ 기업 피드백	~ 6월	~ 9월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 담당자와 양방향 피드백 실시
④ 정성평가*	~ 7월 초		지배구조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지배구조)이사회 실제 운영 관행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등급에 고려 (2017년 최초 도입)
⑤ 등급 부여	7.10	10.10	평가결과와 함께 상반기 등급조정 이슈를 검토한 후 최종 등급 부여

2. ESG 등급

- ESG 등급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와 관련한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SG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분류함 (<표 2> 참조)

<표 2> ESG 등급 명칭 및 의미

등급	의미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등급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함
 - 평가대상기간(2017 사업연도)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하고 등급을 조정하여 부여함

□ ESG 평가결과는 KRX 사회책임투자지수(SRI) 종목구성에 활용됨

<표 3> KRX 사회책임투자지수

구분	내용
KRX ESG Leaders 150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을 모두 반영한 ESG 통합점수가 높은 상위 150종목으로 구성
KRX Governance Leaders 100	지배구조(G)점수가 높거나 지배구조점수가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종목으로 구성
KRX Eco Leaders 100	환경(E)점수가 높거나 환경점수가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종목으로 구성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ESG중 사회책임(Social)분야의 점수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II. ESG 등급 현황

1. 2018년 ESG 등급 현황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 등급은 2017년 등급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 ESG 수준이 우수한 기업들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평가대상기업의 79%가 취약한 ESG 수준(‘B’ 이하 등급)을 보여 상장회사 전반적으로 ESG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표 4>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등급 \ 구분	비고			
	ESG 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S	-	-	-	-
A+	11	7	38	9
A	41	55	50	27
B+	101	142	137	144
B	261	216	241	295
C	278	110	250	226
D	35	197	11	26
계	727	727	727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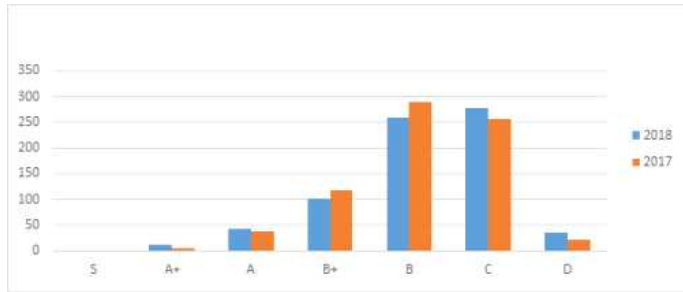
2. 전년도 대비 ESG등급 변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 등급은 2017년 등급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표 5> 전년 대비 2018년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고
	2018	2017	
S	0사	0사	
A+	11사 (1.5%)	5사 (0.7%)	▲ 0.7%p
A	41사 (5.6%)	38사 (5.2%)	▲ 0.4%p
B+	101사 (13.9%)	116사 (15.8%)	▽ 1.9%p
B	261사 (35.9%)	290사 (39.6%)	▽ 3.7%p
C	278사 (38.2%)	261사 (35.6%)	▲ 2.5%p
D	35사 (4.8%)	23사 (3.1%)	▲ 1.7%p
계	727	733사	

<그림 1> 2018년 ESG 등급 분포



□ 전년 대비 등급 상승 및 하락

- ‘A+’ 등급과 ‘A’ 등급 기업은 전년 대비 각각 6사, 3사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사회 운영 관행이 개선되었고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에 비해, ‘C’ 등급과 ‘D’ 등급은 전년 대비 각각 17사, 12사 증가하여 개선이 요구됨
- 유가증권시장 내, 전년 대비 등급이 변경된(상승 또는 하락) 기업은 모두 232사(37.7%)이며, 이중 등급 하락 기업(132사)이 상승 기업(100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2017-2018년 ESG 등급 변동 현황

변동 내용	기업 수	비율
등급 상승	100	16.2%
등급 유지	382	62.2%
등급 하락	132	21.5%
계	614*	100.0%

* 2017-2018 연속 평가대상 기업

3. 영역별 등급 변화 요인

□ 환경

- (전년도 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증가하였으나,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 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정보 공개 기업 326사(37.0%)로 전년대비 44사 증가함

□ 사회

- (등급 상승)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기업 관행이 개선됨
- (등급 상승) 지주회사 평가체계 개선 → 자회사의 비재무정보를 반영함

□ 지배구조

- (등급 상승) 1)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CoE) 도입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공시 개선, 2)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강화, 3)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및 감사기구 운영 개선 등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등급 하락) 감점 적용 기업(402사, 58.7%) 전년 대비 52사 증가함